

# 금남로에서

박진현



지난 1969년 10월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 '영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던 팝 가수 클리프 리처드가 '더 영 원스(The Young Ones)'를 부르며 시작하자 돌발상황이 벌어졌다. 뒤에 익숙한 노래에 열광한 일부 여성팬들이 속옷과 스타킹을 벗어 던진 것이다.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속옷 해프닝'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환호 속에 등장한 힐러리의 모습은 톱스타 그 이상이었다. 미 워싱턴 정가의 '넘버 2'이자 여성 정치인으로서, 주부이자 엄마로서 겪은 '선배 알과결'의 경험담은 그 어떤 엔터테이너

힐러리가 '똘을 낫추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힐러리는 또 도전정신을 강조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변호사, 퍼스트 레이디, 뉴욕 상원의원 등을 거치며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들려준 것이다. 특히 비록 도전으로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출마는 값진 경험이였으며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회고했다. 인생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나는 한 여학생의 질문에 "누구나 도전에 직면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

하지만,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살아있는 역사(Living History)'로서의 힐러리 자신이었다. 우주인이 되고 싶었던 13살 소녀는 미 항공 우주국의 납치차 별로 좌절됐다. 그 대신 지구촌을 유영하는 국무장관으로서의 변신은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인생은 출발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Do what you love). 항상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말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 '마담 세크레터리'가 남긴 선물

### 문화충격 던진 힐러리 梨大강연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지난 20일, 또 한 명의 글로벌 스타(?)가 이대 강당을 찾았다. '마담 세크레터리(Madam Secretary·여성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61)이다. 미 국무장관 자격으로 무대에 선 그녀는 2천여 명의 여학생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화려한 경력에서 뽑어져 나오는 당당함과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는 '원조 알과결(공부·리더십·운동 등 다방면에서 남학생을 앞서는 엘리트 소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도 흥내 낼 수 없는 '색깔 있는 무대'였다.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상 1시간의 짧은 '공연'이었지만 한국의 알과결들은 문화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

여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힐러리는 "아버지가 이화여대의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턴(Scranton) 여사의 철자와 똑같은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출신이다. 이런 인연인지 몰라도 이대 방문은 (내겐) 예정된 운명인 것 같다"는 말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마담 프레지던트(Madam President·여성대통령)'가 될 뻔한 거인

생이 펼쳐진다. 역경이라도 피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감사의 훈련(Discipline of Gratitude)'을 지녀야 한다"고 역설했다.

힐러리는 평범한 엄마로서의 모습도 감추지 않았다. 외동딸 첼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 단박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로서 가장 멋진 경험은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워킹 맘의 한마디는 화려한 싱글을 꿈꾸는 한국의 알과결들에게 신선한 충고가 됐음은 물론이다.

### '여성들이여, 꿈을 좇아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머문 시간은 불과 21시간이었다. 그녀의 방한(訪韓) '선물보따리'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바로 '힐러리 신드롬'이다. "술한 도전과 맞닥뜨릴 때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한국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특히 사회적, 개인적인 이유로 알과결로 성장하지 못하는 알과결들에게는 그 어떤 동기 부여보다 강렬했다. 만약 힐러리 신드롬이 반쪽 현상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알과결에게 확산된다면 머지않아 세계를 누비는 한국의 '마담 세크레터리'를 보게 될지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힐러리가 한국 여성에게 남긴 값진 선물은 아닐까. <논설위원> jhpark@kwangju.co.kr

## 시설

### '5+2 선도산업'마저 영호남 차별인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에 호남권(광주시·전남도·전북도)과 대경권(대구·경북)의 사업이 중복돼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 호남권 내용의 산업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핵심 사업에 대경권이 뛰어든 것이다.

호남권은 관련법에 명시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부합하는 사업내용 등을 채택한 만큼 정부가 호남권 사업으로 확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적 지원근거도 없는 대경권의 '그린에너지'는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명칭은 다르지만 양 권역 사업의 핵심이 태양전지부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호남권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미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더욱이 영남에 2개, 호남에 1개의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차별한 것도 모자라 성장가능성이 큰 태양전지마저 영남에 넘겨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호남 지자체들은 태양전지사업이 이 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명분을 만들라는 얘기가.

하고 있다. 갈등을 해소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개최한 컨설팅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호남권에 불리한 내용의 산업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좋은 예다. 전남 지역에 풀리실리콘 공장이 건설중인 만큼 호남권은 태양광 소재쪽이 바람직하고, 대경권은 전자업체가 많은 만큼 태양 전자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신성장 선도산업의 취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호남권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미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더욱이 영남에 2개, 호남에 1개의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차별한 것도 모자라 성장가능성이 큰 태양전지마저 영남에 넘겨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호남 지자체들은 태양전지사업이 이 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명분을 만들라는 얘기가.

### '눈덩이' 가계 빚 우리 경제 '화약고' 되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은 전년말보다 57조원 늘어난 688조 2천억원에 달한다. 가구당 빚은 4천128만 원으로 1년 새 280만 원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개인의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은 작년 9월 말 기준 2.15배를 기록해 2003년 3월(2.14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때 주가가 급락해 부채 상환능력은 더욱 떨어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가계 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계대출 여건 개선을 위해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60%로 전년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

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0.48%를 기록 중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서민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급증하는 가계 빚은 소비침체와 내수 경기 악화를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이 90년대 초 심각한 가계부채 발(發) 금융위기를 겪은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가계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 우리 경제도 미국 경제와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가계 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계대출 여건 개선을 위해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빌 게이츠는 자타가 공인하는 컴퓨터 박사다. 그러나 그가 컴퓨터만 들여다 보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소문난 독서광이라는 데 또 한번 환호한다.

과하이라 경제분야에서부터 자서전·문학류 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독서범위는 한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가 책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한 그의 어록 역시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신선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나폴레옹은 빌 게이츠보다 한 술 더 뜬다. 그가 일생동안 읽은 책은 무려 8천여 권에 달한다는 기록이 있다. 독서시간을 40여 년으로 친다면 1년에 무려 200권씩 읽어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은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듯하다. 치열한 격전지에서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섭렵한 책의 종류도 유럽대륙보다 더 넓어 성서는 물론이고 코란까지도 섭독했다고 전한다.

뉴턴·아인슈타인·링컨에다 우리나라 CEO들도 어린 시절은 물론 성공한

이후에도 책을 가까이해온 독서광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교육열로 이름난 우리나라의 독서광이라는 데 또 한번 환호한다.

과하이라 경제분야에서부터 자서전·문학류 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독서범위는 한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가 책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한 그의 어록 역시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신선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나폴레옹은 빌 게이츠보다 한 술 더 뜬다. 그가 일생동안 읽은 책은 무려 8천여 권에 달한다는 기록이 있다. 독서시간을 40여 년으로 친다면 1년에 무려 200권씩 읽어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은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듯하다. 치열한 격전지에서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섭렵한 책의 종류도 유럽대륙보다 더 넓어 성서는 물론이고 코란까지도 섭독했다고 전한다.

뉴턴·아인슈타인·링컨에다 우리나라 CEO들도 어린 시절은 물론 성공한

## 책 읽기



시험공부하는 장소로 여기는 풍토가 바로잡아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이 '백련클럽'을 운영하는 등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도서관 증설과 함께 책읽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중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 기고

최희동



진보도 보수도 국가가 위기라고 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탄생한 MB정권은 747과 대운하의 좌절 이후 성과에만 집착한 속도전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비난이나 북을 주적으로 하자는 논쟁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언론과 인터넷, 역사교과서와 영어몰입교육 같은 갈등요소가 분열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대통령의 임직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사적 연계를 포기하고 경쟁자를 진심으로 포용하는 마음과 진정성을 가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는다. 물론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총동

조복주



광주는 친환경 생태의 도시이면서 질서와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성지로서 관광산업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져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활력의 푸른 도시다. 그리고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로 예술의 향연을 펼치고 있는 문화수도이면서 맛을 아는 남도의 중심으로서 세계적인 음식맛을 자랑하는 미향으로 힘찬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

몇 줄이고 우리네 정취를 느끼면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다가올 세계대학스포츠포럼(FISU) 실사단의 광주 방문에 앞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문화와 예술이 첨단 산업과 함께 온 누리를 밝히며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온 시민 한분 한분에 작은 실천의 지지를 모아 나갈 때만이 우리 광주로의 위치가 성공하리라고 본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으뜸 광주의 용비를

### 'U대회 광주 유치' 시민 모두 총력을

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민주·평화·인권의 성지인 광주는 정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는 명예로운 도시이기도 하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전 세계 젊은 대학생들의 스포츠 대축전으로 광주와 같은 활차고 활력있는 도시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면, 스포츠 향연에 참가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광주가 아니라 세계에 우뚝선 광주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최지를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광주 유치를 염원하면서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발적 참여형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만들어야 하고, 광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제공해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 광주에서 마음

저해하는 명예로운 무등인으로써 자긍심에 상처되는 모습임을 다같이 인식하고 모두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자.

다같이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광주 유치를 위하여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가꾸고 FISU 실사단 한분 한분의 가슴깊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광주 유치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온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이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모두 함께 다함으로써, 다가오는 5월 23일, 벨기에 부뤼셀에서의 FISU 총회에서 우리 광주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어질길 시민 모두가 다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하자. <사단법인 한국단리주점 광주광역시지회장>

### 운전자·보행자 위협하는 '잘못된 신호체계' 고쳤으면

자전거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건 좀 고쳤으면 하는 게 한가지 있다. 그것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 차를 돌리자마자 곧바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들어오는 불편함이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진행을 할 때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올 경우 좌회전만 믿고 차를 돌리던 운전자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급정거를 하게 마련이다. 그것도 신호체계를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은 안전운전 혹은 방어운전을 하게 되지만 초행길인 사람들은 추돌 사고나 보행자를 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전국 모든 4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 중 좌회전 후 곧바로 들어오게 돼있는 보

행자의 횡단 신호를 고쳐주었으면 한다. 즉 좌회전 신호가 끝날 무렵쯤에 횡단보도에 신호를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차들이 안전하게 모두 빠져나간 후 보행자들도 맘 놓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차로 신호의 경우 좌회전 신호의 주어진 시간이 직진신호에 주어진 시간에 비해 짧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좌회전 통과 차량의 교차로 통과한 다음 횡단보행자가 길을 건너도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있을 걸로 보지 않는다. 이는 차량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제 위험한 요소이므로 꼭 고쳐야할 교통체계이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 은편칼럼

최희동



진보도 보수도 국가가 위기라고 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탄생한 MB정권은 747과 대운하의 좌절 이후 성과에만 집착한 속도전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비난이나 북을 주적으로 하자는 논쟁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언론과 인터넷, 역사교과서와 영어몰입교육 같은 갈등요소가 분열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대통령의 임직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사적 연계를 포기하고 경쟁자를 진심으로 포용하는 마음과 진정성을 가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는다. 물론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총동

### 국란 자초한 MB정권 1년

경제위기와 함께 '촛불의 평화적 경고'를 무시한 독선과 공권력 지상주의는 용산참사로 이어져 국가위기의 다른 한 축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는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정청의 최고 책임자는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 민주주의사회는 정당정치적 정당의 역할과 책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면 민심은 이미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은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 하나 더 걱정스러운 점은 남북 당국 간의 단절이다. 긴장완화를 통해 통일에 대비하자는 시대의 흐름은 노태우정부의 화해협력정책에서 시작되었다. 극우세력의 햇볕정책에 대한

구태하듯 대통령을 뽑는 잘못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후보자의 국정철학은 무엇이고 시대정신은 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그에 대한 가치가 내적으로 충실한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

백의중군에서 돌아온 이순신 장군은 열 두 척 밖에 남지 않은 배를 보면서 오 히려 '아직 열 두 척의 배가 있으니 해전에서 얼마든지 왜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부하들을 일깨워 나라를 난국에서 구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간결한 외침이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을 가능하게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난 1년을 겸허히 반성하고, 보수언론이나 극우단체의 말보다는 국민의 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바란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사무총장>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칼럼'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 불임 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4~5회로 늘려야

저출산이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우리나라다. 요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백악이 무효라는 말이 딱 떨어질 정도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몇 년 전부터 정부는 불임부부를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 사람이 평생 세 번까지, 시술을 위한 병원비는 대략 300만~350만원 선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관 아기 평균 성공률은 30% 미만이다. 세 번 시술해서 한 번 성공한다는 것이다. 많은 불임여성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

해 직장을 포기한다. 육체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회사생활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험관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을 위해 적어도 4~5번까지는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연속 3회 지원금을 주고, 그 때까지 성공이 안 되면 4번째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도 말이다.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아기를 낳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금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喆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 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 회 1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